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에 관해 지사로부터 현민 여러분께 요청
(요약)

에히메현에 대한 정부의 긴급사태선언은 5월 14일에 해제되었습니다만, 현에서는 5월 31일까지를 「감염 경계기」로 지정했었습니다.

현 내에서는 골든 위크 이후, 마쓰야마 시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만, 현재 지역감염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2차 유행이 의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한순간에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신중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히메현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3주간을 「감염 축소기를 위한 이동 기간」이란 입장으로, 현민 생활과 경제 활동의 균형을 고려해가며, 자숙요청 등을 일부 완화합니다.

현민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1일 이후의 현민 여러분께 요청】

지금까지 현 외로의 이동과 특히 감염확대 지역(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경계 도도부현)으로의 외출에 대해서는 자숙을 요청했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현 외로의 일반 외출에 대해서 자숙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만, 수도권(사이타마, 지바, 도쿄, 가나가와)과 홋카이도 등의 특정 경계 도도부현이었던 곳과 기타큐슈시 등, 현재 감염 확대 중인 지역으로 외출할 경우에는 아무쪼록 감염 위험에 주의해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 내, 현 외를 불문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3밀(밀폐, 밀집, 밀접)의 회피에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3밀 대책이 어려운 카바레와 유흥업소, 과거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로의 외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숙을 요청합니다.

이상의 사항들에 근거해, 현민 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감염확대 회피 운동」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염확대 회피 운동]

◇ 「감염되지 않도록 자기방어！」

꺾은 손 씻기와 정기적인 환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관리 등

◇ 「감염시키지 않도록 주변에 대한 배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자택 요양, 타인과 접촉 시에는 거리를 두기 등

◇ 「현 외로의 외출 주의와 3밀 회피！」

수도권(사이타마, 지바, 도쿄, 가나가와)과 홋카이도, 그 외 감염이 확대하고 있는 지역, 3밀 대책이 어려운 카바레와 유흥업소 등은 특히 주의 등

의료종사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의료종사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